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8.(화) 06:00 < 8. 8.(화) 석간 > 배포 2023. 8. 7.(월)

폭염·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관리

- 2차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에서 전력 절정(피크) 대응상황 점검 -
- 무더위로 이번 주 전력수요 최고조,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 -

어제 전력수요가 기존에 예상했던 92.9GW를 넘어선 93.6GW까지 오르며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밀집 지역인 호남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당국과 관계기관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갑자기 수요가 급등하거나 발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관련 기관과 정부 간 상시 보고체계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예상되는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수요가 예상보다 높으면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예비자원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와 관제 시스템도 전력 절정(피크) 기간에 대비하여 소관 기관 주관으로 철저히 사전 점검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지난달 나주 중앙관제센터에서 여름철 수요와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전력 절정(피크) 주간인 오늘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를 점검했다. 경인 관제센터는 평소에는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송전망 운영 역할을 분담하지만, 중앙관제센터 가동이 불가한 비상상황에서는 전체 계통 운영 업무를 이어받는 '후비 급전(back-up)' 업무를 수행한다. 강 차관은 이날 송전선로 등 실시간 설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태풍 '카눈'의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영남지역의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들과 유선 통화를 갖고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리 1호기(원전), 부산복합(액화천연가스(LNG) 복합), 신 양산변전소 등

강 차관은 "어제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여름철 대책 기간 끝까지 자세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관계기관에도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달라"면서 "오늘까지도 전력수요 절정(피크)이 지속되고 태풍 예보도 있는 만큼 맡은 바 업무에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 현장점검 개요**

❖ 전력수급 통합관제 현장 찾아 **하계 전력수요 피크 상황 점검,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당부**하고 **현장직원 격려**

□ 행사 개요(안)

○ 일 시 : **'23. 8. 8.(화) 09:30~10:10** (40분)

○ 장 소 :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 (경기 의왕)

○ 참석자 : **2차관**, 전력거래소 빈철원 경인지사장

*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본사 관제센터에서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대응

□ 주요 메시지

○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까지 **전력수요 피크 상황 지속**, 모든 관계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 대응**

□ 세부 계획(안)

일 시	내 용	비 고
09:30~09:35 (5')	도착 및 이동	
09:35~09:40 (5')	모두발언	2차관
09:40~09:45 (5')	8월 2주 하계 전력수요 피크 대응 및 향후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장
09:45~09:55 (10')	당부말씀 및 현장근로자 유선통화	2차관
09:55~10:10 (15')	경인 관제센터 점검 및 직원 격려	(3층 관제센터)

※ 모두발언까지 공개, 촬영은 사전등록 필수(별도공지)